

# 전문인력 도입·봉축행사 전략기획팀 구성해야

## 좌담 : 봉축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일시 : 2007년 5월 11일  
장소 : 현대불교신문사  
참석자 : 수암 스님(서울 화계사 총무), 박상희 조계종 총무원 행사기획 단 팀장, 권두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무국장  
사회자 : 남동우 취재부 기자

수암 스님 사찰·종단 점등식 참여도 높여야  
박상희씨 개인등 중심으로 연등축제 진행을  
권두현씨 한국불교 대중성 획득 노력 필요



서울 화계사 총무 수암 스님.



박상희 조계종 총무원 행사기획 팀장.



권두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무국장.

**봉** 축행사가 종교행사를 넘어 하나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찰에서는 연등달기 수준을 넘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봉축행사의 꽃인 연등축제는 타종교인과 외국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봉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마련했다.

### 봉축행사, 불교문화에 문제의식 제기

사회자 : 먼저 봉축행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박상희 : 봉축행사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전법을 신행활동과 연계시켜서 신행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방식으로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전법과 신행단체 활성화, 문화적인 활동 이 세 가지의 맥이 통해야 봉축행사의 의미가 있다.  
수암 : 진리의 범람인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탄하는 행위 중 하나가 등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연등축제로 진리를 설파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문화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거나 부처님오신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단위사찰에서 봉축행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신도조직을 구성하고 끌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  
권두현 :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문화적인 흐름을 가져왔는가를 이해한다면 지금 봉축행사의 가치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종교는 있지만 문화는 상당히 잃어버렸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축행사는 한국불교문화에 커다란 문제의식을 던져준 것이 분명하다.  
박상희 : 봉축행사를 진행하면서 단체들이 공감하며 달라진 부분이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등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다.

즉 경쟁이 치열한 것은 불교적이지 않다. 모두가 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불교를 공부하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것들이 행사 속에서 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암 : 당위성들은 많이 발전했다. 그런데 봉축행사가 무슨 행사이고 왜 하는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불교는 '하지마라' 문화가 강하다. 이것으로는 축제를 못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즉 답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교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두현 : 연등 상징물 만들고 동자승 캐릭터 만들어 대중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봉축행사의 뜻이 있다. 즉 봉축행사는 한국불교의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오늘 좌담회도 그런 뜻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자 : 이제 봉축행사의 현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현실을 직시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성적표를 매겨 달라.  
박상희 : 일단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했다. 하나를 확실히 해야 다른 것이 풀리는데 그 하나를 찾았다. 봉축행사는 민중적인 축제라는 것이다. 참가자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사람들의 자발성을 키워내는 것이 축제의 핵심이다.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주인으로 성장시키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 축제의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두현 : 우선 연등을 불교 대표 이미지로 만들었고 연등 문화를 창조했다는 데 가장 의의가 있다. 이전에는

등은 있었지만 문화는 없었다. 연등이 봉축행사 통해 굉장히 많은 대중성을 획득했다. 이것은 한국축제사나 불교사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불교의 전통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보편적인 상징성으로 불교가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수암 : 아직 봉축행사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몇만 명이 참석하는 법요식을 할 때 전체 대중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요식이 되어야 한다. 현재는 너무 도식화된 의식과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 봉축행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집중도를 높여 가야 한다. 이것은 봉축행사뿐 아니라 불교행사 전반에 대한 지적이다.  
권두현 : 등은 하나의 사례다. 흥겨운 노래나 율동을 영상매체에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왔다. 또 이것들을 체계화된 작업을 통해 전달하자 신도들이 새로운 봉축문화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또 대중적 예너지를 표출했다. 봉축행사만큼 신도들에게 자극을 준 것이 있는가. 누구도 봉축행사가 이렇게 성공할 것인지는 못했다. 봉축행사는 불자들의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선택'과 '집중'으로 자발성 키워내

사회자 :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봉축행사의 시적을 일리는 서울시청 앞 점등식을 비롯해 연등축제, 봉축법요식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달라.  
박상희 : 10년 이상 서울시청 앞 점등식을 진행해 오면서 장엄등에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처음에는

선전탑에 등을 달았다가 탑 모형에 네온으로 불 켜기도 했다. 1996년 이후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어 냈다. 현재는 대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0미터로도 만족하지 못해 이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며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공간이 요구된다. 또 해체해서 관리하는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복합 기술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다. 전통등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점등식은 대형화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즉 집중해서 개발해야 하는 문제다. 조형미, 안전성,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조화돼야 작품이 만들어 진다. 기술투자 내지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돈 등이 투입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권두현 : 진주 유등축제는 시민들에게 등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기술과 재원, 규모의 미학이다. 시리즈 탱화 형식도 검토해볼만한 하다. 대만 의 축제에 예로 들면, 대형 조각물로 12자신상을 만든다. 높이 7~8미터, 직경 1미터 정도의 상징물에 레이저를 이용해 빛과 레이저쇼를 펼친다. 문제는 개당 9~11억원 드는 제작경비다.  
수암 :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수렴해야 한다. 지금 조형물보다 화려해도 괜찮다. 보는 사람 역시 화려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불교계 전체가 움직여야 함에도 점등식이나 연등축제 참여도가 매우 낮다. 장엄물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사찰이나 종단에서 제작에 참여해야 한다.

**ROBUSBILL**

후원금, 기부금, 회비, 월정료 등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단체, 기관 등에서 후원금, 회비, 사용료 등을 회원의 전화요금(KT전화, 휴대폰) 고지서에 합산고지하여 청구 및 납부하는 서비스로, 가장 안전하며 편리한 동시에 회수율이 높은 결제 서비스입니다.

**로버스빌과 함께하실 독립적인 영업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회수대행 서비스 영업활동)

(주)로버스빌은 off라인상으로는 KT유선 전화 결제(회수대행) 서비스와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on라인상으로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와 PG사를 통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on/off라인 상품 서비스나 지불대금을 여러 가지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원의 1회 동의로 각종 회비의 정기적인 청구가 가능.
- 회비 수납업무 전산화를 통해서 계량적인 관리 가능.
- 99%까지 수납율이 가능.

주식회사 로버스빌 Tel. 031)737-8046 (담당자: 원철연 과장) <http://www.robustbill.co.kr>

최고의 보안전문회사, 전문가를 찾으십니까?  
24시간 365일 보안관리 전문가가 있다!

이글루시큐리티(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2 원앙빌딩 6층 T 02-352-9814 F 02-3452-9815

www.igloosec.co.kr

통합보안관리 서비스 - **HUSKY Service**

보안정책수립, 보안솔루션 제공 및 구축, 취약점 분석, 보안교육서비스, 보안시스템 24시간 실시간 관리, 모니터링